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05)(12/18/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10 장 세상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달콤한 삶, 3 절

고전 4:7 -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시 91:11 -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히 1:14 -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나.

3. 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내가 주를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것도 주의 것입니다(고전 4:7).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지으신 하늘과 땅은,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 명령을 준행할 채비를 갖추고서, 날이면 날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조차 작은 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천사들을 지으시고 조직하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시 91:11; 히 1:14).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주께서 친히 사람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시고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해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기가 필요한 어떤 것을 주의 응답으로 받은 것으로만 인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친밀하게 간섭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솜양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아브라함을 극진히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듯 미리 준비하심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어머니 사라를 여의고 시름에 젖어 있던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하여 리브가를 만난 것도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가는 고통을 당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의 가정을 위험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파란만장한 요셉의 생애의 매 순간 속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동행이며, 이끄심이며, 준비하심이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사람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한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시다.

은혜의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 주시며, 넘어지려고 할 때 업고 안고 여기까지 오셨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그리고 은혜의 흐름 속에 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주의 백성은 형통할 때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간다. 약 5:13 -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작은 성공에 교만해 지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이다. 아울러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어려움, 갑작스럽게 당하는 위기, 때때로 경험하는 실패와 사고에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바울의 굴곡 많은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비록 그들에게 일시적인 고난은 허락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셨고, 낮추셨지만 다시 높이셨고, 가난하게 하셨지만 참된 부요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패한 듯이 보이고 비천하게 보이는 듯 했지만 진정한 성공과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셨음을 알기 때문이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 속에 있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고백했다. 고후 6:4-10 -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기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다. 은혜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살아간다. 오늘도 은혜 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은혜 안에 겸손하며, 감사하고, 담대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2. 자연 재해, 전쟁, 기근,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오늘도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